

언약 전쟁 (창세기 14:17-24)

▶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 예배이다. 지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잘 생각해보고 감사하며 다시 한 번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 전쟁”이다. 우리 인생은 전쟁인데 언약 전쟁인 것!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 원인이 원죄인데 그 원죄의 원인은 사단이다. 그럼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할 답 언약이 우리의 답이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온다.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실 가만히 있어도 평안하다.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오니 우리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한다. 우리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살면 되는데 사단은 그런 우리에게 전쟁을 건다. 우리에게 이 사단을 이길 힘이 없지 않나? 모든 문제가 영적문제인데 이 사단을 이길 답이 언약인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을 가지고 살면 전쟁에서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멜기세덱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걸 굉장한 메시지이다. 다시 한 번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 바란다. 이 그리스도는 계속 확인해야 하고 가능한 깊이 들어가고 24시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왜? 사단은 24시간 쳐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 번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언약되기 바란다.

▶ 올해 우리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이란 말씀을 받았다. 이 미션을 위해 237 영적 통신망을 만들라고 하였다. 영적 통신망은 기도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보좌와 전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란다. 사단도 이런 237영적 시스템으로 우릴 공격한다. 우리도 당연히 이 영적 세력에 맞붙을 수 있는 영적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단은 영적으로 공격하는데 우리 육신적으로만 맞서고 있으면 말이 되겠나? 예전에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였다. 복음을 알고 영적 눈을 알고부터는 사단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제는 전과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 완전히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이게 답이다.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건 다 종교이다.

▶ 사단이 하는 영적 시스템을 통해 공격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라는 것이 영적 통신망이다. 사단이 역사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도 있다. 사단에게 붙어 영적인 영향을 받아 굉장한 권력이나 재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그들과도 싸워야 하겠지만 그 전에 사단의 영적 시스템을 깨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진을 바로 공격해서 박살내는 영적 싸움이 근본이다! 이게 237영적 통신망인 것이다.

▶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다. 237영적 통신망 이런 거 필요 없었을 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깨지고부터 사단이 인간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 때부터 사단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걸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답은 이거 하나 뿐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언약으로 잡아라.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깊이 계속 하는 것이다. 아직도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이 많다. 무궁무진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깊이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뱀의 머리를 가루 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1. 언약 전쟁

▶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북쪽에 있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다섯 왕에게 전쟁을 걸어온 것이다. 그 때 뚫도 잡혀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준비한 군인들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 그들을 부수고 제물과 사람들을 데려오는 장면이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오늘도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항상 목표가 한 개 있다. 바로 언약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것도 그리스도! 언약이다.

창세기 14:14~16을 보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최고 북쪽까지 가서 왕을 무너뜨리고 제물을 가져오고 사람들도 데리고 왔다. 아브라함은 이 정도로 힘이 있고 부강하였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길 이 때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식구들이 약 1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생각해보라. 하루 밥 세끼를 천명이 먹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어떨겠나?

▶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나타났다. 살렘 왕이란 말은 평강의 왕이란 말인데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 이 내용이 오늘 핵심이다.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딱 두 번 나온다. 처음에는 오늘 여기이고 두 번째는 시편 110:4에 나온다.

시편 110:4 여호와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시이다. 여기서 너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주님께 말하기를 너는 아론의 서열을 따라 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다고 하셨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게 없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다. 이스라엘에 제사장 제도를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제사장이다. 그 후손을 따라 제사장이 내려온 것인데 예수님은 그 서열이 아니란 말이다. 멜기세덱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육신적인 역사도 없다. 하나님이란 뜻이다.

히브리서 7:3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 이렇게 멜기세덱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 말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면 오늘 창세기 14장에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 이는 영원한 제사장이란 의미를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왕의 모습으로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때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셨고 나중에 이 떡과 포도주는 언약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앞으로 언약 상징의 핵심이 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알아들었고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심일조도 드렸다.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창세기 22장에 완성된 믿음의 조상이지 않나?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전에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다. 아브라함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았다. 그러니까 심일조도 드릴 수 있던 것이다.

▶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왜 오신 것인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첫째 생각해 볼 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나는 네 언약이야!” 이 말씀이다. 나는 너의 언약이야. 나는 너의 떡과 포도주야! 너는 이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언약의 주인이야. 이 전쟁은 언약 전쟁 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거야.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언약 때문에 네가 이긴거야!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역사하는 것 아니냐? 그 언약이 나다! 그 언약이 떡과 포도주야! 이게 예수님 하시고 싶던 말씀인 것이다. 너 이것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대적을 붙이신 걸 잊지마! 그리고 앞으로도 너는 이 언약으로 살아! 그러면 계속 네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네 인생에 준 답은 이거 하나뿐이야. 너는 나를 네 인생의 언약으로 삼아라! 이런 메시지를 하러 오셨다.

▶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하셨다. 아브라함을 축복해주시라고 기도 한 것 외에는 없다. 그냥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거기에 나타나신 것! 근데 아브라함은 다 알아보았다. 모든 걸

깨닫고 십일조 드렸다!

요한복음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때 본 것을 기뻐하였는지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아브라함이 산 시대는 약 2000년 전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주님으로 알아본 것. 난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떡과 포도주를 절대 단순한 음식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 떡과 포도주는 군인들에게 음식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에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다. 근데 그냥 나누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걸 내 몸이라고 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몸을 말한 것. 그리고 포도주를 줄 때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주었다. 그날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저녁으로 먹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이다.

▶ 이처럼 아브라함도 단순한 음식만이 아니었다. 하나님임을 이해했고 오히려 먹는 행위 자체가 필요했다.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하튼 오늘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나는 네 언약이야!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야! 이 언약이 네 인생의 답이야! 네 인생은 언약 전쟁이 되어야 해. 이걸 잊지 마라 이 말씀이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언약으로 전쟁하는 축복이 넘쳐나기 바란다.

2. 믿음의 고백

창세기 14: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 들매 끈은 신 끈을 매는 줄이다. 네게 쓰는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한 신앙 고백이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언약이 무엇인지 상당히 이해가 된 상태였다. 아브라함이 그 정도는 받을 법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받지 않은 것이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뭔가 물질 때문에 고개를 숙이거나 비굴해지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언약잡고 도전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망가뜨리는 선택은 할 수 없다. 물론 너무 어려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물질 앞에 너무나 비굴해지지 말라는 말이다.

▶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은 항상 포인트가 답이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12장~22장까지 길게 기록하였다. 그걸 다 읽고 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생각하고 잡으라는 말이다. 그는 식솔이 1000명이나 되는 거부가 되었다. 오늘 전쟁을 하는 왕들은 대단히 큰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조그마한 부족들의 왕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왕 4명과 개인이 싸워 이겼으니 대단하지 않나?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는 너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아브라함같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 우리가 응답 받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언약, 둘째는 방향이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의 자세도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근본은 당연히 언약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고 방향은 하나님의 소원 곧 세계 복음화이다. 자세로 말하자면 우리의 사람 됨됨이나 진실한 정도가 영향을 주겠다.

▶ 대체적으로 다 영적 문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인본주의가 강하다. 어떤 사람은 계획이 너무 많아서 언약을 앞서간다. 언약을 누리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더 근본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나 계획이 너무 많다. 기도하고 언약 잡고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고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언약 누림이 부족해서 영적 승리가 부족하다보니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많다.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는데 영적 승리가 안 되니까 제자리에 맴돈다. 어떤 분은 복음 너

무 좋은데 실제 삶은 언약 밖에 있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이 정도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아주 다양하다.

▶ 그러나 자세와 방향은 언약에 달려있다. 자세가 안 좋으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 나는 예를 들어 진실하지 않고 인본주의가 많아! 생각든다면 고쳐야겠다. 내 영적 색깔은 약간 이상해! 싶다면 그것도 고쳐야겠다. 무엇으로 고치겠나? 언약으로 고친다. 언약 아니고 고쳐지겠나? 이를 악물면 이빨만 부러진다. 나는 뭔가 인본주의, 종교, 노력, 열심히 들어있는데 무엇으로 고치는가? 언약으로 고친다.

▶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은 언약이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나온다. 우리 중에서 세계 복음화 싫은 사람 있는가? 아무도 없다. 눈이 안 열려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싫지는 않다. 그래서 결국 근본은 언약이다. 언약을 딱 누리는 것. 그러면 이런 저런 모든 영적인 게 치유되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브라함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이다. 항상 단으로 승리해서 단의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한 그런 인물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catch하라는 말이다. 단을 쌓아라! 그리고 이 언약 고백으로 그는 거부가 되었다. 힘을 가진 자가 된 것! 나중에는 주변의 왕들까지 와서 무릎 꿇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언약이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부족한 점은 상당히 있었지만 결국 승리했다. 이걸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너도 언약을 잡고 있어야! 결국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릴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나?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항상 방해한다. 사단이 만일 100% 무너진다면 즉시 100%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있다.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 믿음의 고백이 나온 이유는 그 정도로 고백할 만큼 사단의 세력이 끊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응답도 받은 것. 그래서 방향도 중요하게 우리의 자세도 세~밀 하게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나 결국 근본은 언약, 그리스도이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사람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언약의 전쟁을 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적 역사에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하라. 우리 인생은 언약 전쟁이다.

내 인생이 왜이런가? 내 언약이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은 답을 한 개 주었다. 문제의 종류는 수 만 가지라도 답은 한가지이다. 문제의 원인이 한가지이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 한다. 영적 통신망은 올해 주신 메시지이다. 영적 통신망의 근본은 그리스도이다. 영적 통신망의 목표? 언약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누릴 것은 언약이다. 그리고 영적 통신망으로 뭐 할 것인가? 언약되신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것을 통해 사단의 영적 통신망을 박살내는 것. 그래서 뭐하나? 언약 누리고 나도 살고 그래서 사람도 살리는 것이다. 이게 영적 통신망의 목표와 출발이다.

▶ 올해 원단기도회의 핵심은 다른 단어로 기도이다. 영적 통신망이 생길만큼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 사단의 활동을 그들의 영적통신망 즉 근본으로부터 박살내라! 이것 없이 237나라 살릴 수 없다. 이게 올해 원단 메시지이다. 오늘 다시 한 번 그리스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란다. 더 기도가 깊어지고 영적 통신망도 깊어질 것이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을 누리고 통하게 될 것이다. 그 출발,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이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